김제 용봉사,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

무량수전 내 삼존불상 개금불사 성료 점안법회

'수행도량으로 발전" 발원 방역 지침 준수하며 진행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제 용봉사는 6월 19일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김제 용봉사(주지 법전)가 무량수전 삼존불 개금불사를 회향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6월 19일 정읍 일광사 승천 스님, 군산 성흥사 송월 스님, 정읍 영주사 두봉 스님을 증명으로 봉행된 점안법회는 전북 마하연 승가회,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불교전통의식으로 봉행됐다.

봉의루에서의 법고와 범종타종으로 시작된 이날 점안법회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영산작법보존회 작법이수자 영산 스님을 비롯한 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과 마하연 승가회 스님들이 불교전통의식에 따라 신중작법, 점안의식, 권공, 보위 스님의 승무공연으로 1부 행사가 진행됐다.

김대근 태고종 전북신도회 회장 사회로 진행된 2부 점안법회에는 일광사 승천 스님, 영주사 두봉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영산작법 이수자 영산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 부원장 도홍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자들이 참석해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여법하게 의식을 진행했다.

진성 스님은 축사를 통해 "용봉사가 자리 잡고 있는 봉의산은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길지에 자리 잡고 있다"며 "무량수전의 완공과 삼존불 개금불사를 마무리하며 주지 법전 스님과 신도여러분들의 원력에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지역의 명찰로 거듭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승천 스님은 법문을 통해 "주지 스님을 중심으로 돈독한 신심과 투철한 수행정신으로 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한 용봉사 사부대중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모두의 빛이 되고 보살행의 실천에 앞장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불자들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법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사를 마무리하고 회향을 미루다 오늘에서야 회향법회를 봉행하게 됐다"며 "이제 용봉사 도량이 더욱 견고해졌고 불자들이 수행의 환경이 조성되어 더욱 발전하는 도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용봉사 주지 법전 스님은 용봉사 불사에 참여한 진영고건축 김동식 씨와 김수상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용봉사 불사에 기여한 한영희, 김정순 불자에게도 공로패를 전달했다.

한편, 김제 용봉사는 1700년대 개산한 이래 구한말을 거쳐 동학혁명 당시 소실됐으나 1927년에 들어 복원됐다.

당시 대웅전, 영산전 등이 조성됐으며, 1988년 전통사찰 제 39호로 지정됐고 2009년 기존 미타전을 무량수전으로 중창됐다.

이날 개금불사를 회향한 삼존불 중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상은 1988년과 1982년 무형문화재 8호 탱화장 구봉 스님이 은행나무로 조성했고 지장보살상은 청동으로 조성한 것이다.

여말선초 나옹선사 위상 살피다

송광사 6월 24일 나옹선사 학술세미나 개최



송광사가 6월 24일 개최한 나옹선사 학술세미나 전경.

고려말 위대한 고승으로 숭앙받고 조선시대까지 큰 영향을 끼쳤던 나옹선사의 법맥과 당시 송광사의 위상을 알리는 학술세미나가 6월 24일 송광사 사자루에서 열렸다.

학술대회는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 주지 자공 스님을 비롯해 300여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불교의례, 인사말(보조사상연구원장 김방룡), 환영사(송광사 주지 자공), 축사(전북대 철학과 명예교수 강건기)에 이어 학술대회를 직접 기획한 현봉 스님의 법문 등으로 이어졌다.

현봉 스님은 법어를 통해 "여말선초는 왕조가 바뀌고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천명하는 전환기였음에도 지공의 위상은 절대적이었다. 여말선초의 불교계는 지공, 나옹의 법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며, "학술대회를 위해 사계의 훌륭한 석학들께서 동참하여 옥고를 발표하고 논하는 마당을 열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학술세미나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대웅전에서는 '제646주기 나옹선사 추모 다례재' 가 봉행됐다.

송광사 대웅전에 모셔져 있던 지공, 나옹, 무학 삼화상이 모셔져 있는 영단에서 봉행한 이날 다례제는 불교의례에 이어 추모입정, 육법공양, 추모사, 헌화 등이 이어져 나옹선사를 추모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주 호국사 생명 위한 방생법회

진주 호국사(주지 적민)는 6월 17일 진주 남강 천수교에서 '천수교 나불천 방생법회' 를 개최했다. 〈사진〉

방생법회에는 호국사 주지 적민 스님, 적월 스님, 적음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여명이 동참했으며, 법회는 △방생의식△참회진언△여래십호△용왕정근△아미타불정근△불설왕생정토주△보회향진언△원성취진언△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호국사는 산신기도, 용왕기도, 칠석, 중양절 등 주요 기도일 및 행사일을 맞아 생명의 소중함을 대중에게 가르치고 자비심을 일깨우기 위해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주지 적민 스님은 "가장 복을 짓는 것이 방생이다. 생명을 풀어주는 자비심을 불러일으키고 자기 참회의 시간이 되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교구분담금위 구성, 사찰등급 시행키로

금산사 6월 19일 교구종회 개최

개산대재, 만등불사 등 논의 연등축제보존위 설립도 추진


김제 금산사는 6얼 19일 수현사에서 2차 교구종회를 열고 사찰등급제 등을 논의했다.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주지 일원)는 6월 19일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에서 2차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구종회서는 내년 사찰 분담금 조정을 위한 사찰등급 책정의 건, 개산 1422주년 모악산 문화제 봉행의 건, 만등불사 봉행의 건, '금산사와 호국불교' 학술 세미나 기획안, 전북연등축제보존위원회 설립추진의 건등의 안건을 토의했다.

교구장 일원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불구하고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며 "6월 말까지 내년 분담금 조정을 위한 사찰등급 책정안을 준비해야 돼 불가피하게 종회를 열게 됐다"고 종회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교구종회에서 일원 스님은 옥천암 경호 스님, 영월암 정효 스님, 불주사 덕운 스님, 덕음암 진선 스님에게 주지임명장을 전달했다.

제17교구 사찰분담금위원회는 당연직에 교구장 일원 스님, 총무국장 화평 스님, 재무국장 여찬 스님, 위촉직에는 전주완주지역 원혜 스님, 군산익산지역 보현 스님, 남원 승묵 스님, 무 · 진 · 장 기타지역 광진 스님, 승가회재무 무여 스님으로 구성됐다.

개산대재는 10월 16일 봉행키로 결의했으며, 금산사 복지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만등불사도 같은 날 봉행하기로 결의했다. 또 금산사와 호국불교에 대한 세미나를 가을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전북 연등문화축제보존위원회(가칭) 설립 추진의 건에 대한 토의는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를 명실 공히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등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를 설립하기로 하고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은 전라북도봉축위원회 소위원회에 위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동련, 제14회 연꽃문화제 개최


동련 광주지구는 6월 19일 제14회 광주 연꽃문화제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60여 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어린이들 문예잔치인 광주 연꽃문화제가 회향됐다. 동련 광주지구(지부장 지장)는 6월 19일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제14회 광주 연꽃문화제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글짓기 14명, 그리기 69명, 단체 1개 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행사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 대표 동천 스님, 동구청소년수련관장 소운 스님, 지장 스님을 비롯해 60여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행사는 '병원, 감사, 내가 만약 ○○이라면' 주제로 4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등 24개 단체와 개인 36명 등 그리기 403명, 글짓기 59명 등 총 462명이 참여해 경합을 벌였다.

대상은 광주광역시교육감상을 수상한 글짓기 박희연, 그리기 마준혁 군이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이어 특별상 강다인, 김사랑, 강다인, 강다윤, 최우수상 신영서, 한주희, 우수상 나성호, 안승혁, 임재성, 최서희 등이 수상했다.

행사를 주최한 지장 스님은 "오늘 수상식 자리는 함께하지 못한 친구도 있지만, 수상한 친구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코로나19 시대에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이겨내야 한다"며 "내년에는 천진불들의 고운 눈빛을 하나하나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
승정원장 석벽봉 승 정 석원정 승 정 석혜암

원로원
원로원고문 석법령 위 원 석일우, 석도명, 석청산, 석법륜, 석우암, 석정호, 석법광, 석종우

총무원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담허 법계고시위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종허 의전원장 석법도 어산장 석도암 감찰원장 석원허
비구니회장 석경호
부원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성덕 감찰부장 석성보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자광 사회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민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문화부장 석원종 의식국장 석성혜

비구니회
부회장 석효성 부장 석지현 국장 석충효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도 만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일명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원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진공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성각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제천중앙종무원장 석

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이 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감 사 성덕 성민
운영이사 남산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법률자문위원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 16층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이경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부회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보덕심 (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원장 혜 담 (이정민)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법사승단임원
법사고문 도혜 홍보부장 원명 구미부장 혜진
울산원장 법광 부산부장 혜성 대구부장 혜련
종무원장 성종 경기부장 자운 청주부장 혜원
법사원장 목암 전남부장 혜명 충북부장 상학
경남국장 성광 포교국장 청운 삼척국장 정허
사업국장 종현 통영국장 덕인 영천국장 원명
포교국장 덕운 포교국장 혜림 통역국장 정연
종무국장 종연 봉화국장 혜정 포교국장 혜경
서울국장 명덕 화순국장 보정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Tel 054)682-5808 / Fax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Tel 02)303-5612